

요나서 1장 1-16절 말씀

- 0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
0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 
    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 
0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 
    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 
    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 
    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 
    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
- 04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 
    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 
0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 
    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 
    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
- 0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 
    자는 자여! 어찌함이냐! 일어나서! 네 하나님께 구하라!  
    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!" 하니라
- 07 그들이 서로 이르되,  
    자! 우리가 제비를 뽑아  
    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 
    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
- 08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 
    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 
    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 
    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
- 09 그가 대답하되  
    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 
    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 
    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
- 10 자기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 
    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 
    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
- 11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 
    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
- 12 그가 대답하되

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 
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 
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

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 
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

14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 
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 
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 
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 
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

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 
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

16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 
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